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20. 3. Vol 263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산수유

얼음 풀린 계곡물소리
귀를 적시면
빙어리장갑 벗어던지고
햇볕을 쬐어요.

석 달 열흘
밭치만 내려다보던 고개 들어
하늘도 한 번 쳐다보고요.

켜켜이 쌓인 응달 그림자
다시 어깨 디밀고 왔던
겨울 하나가
내 나이테만 남기고 떠나는

입춘(立春).

당신은 거기, 그렇게 멈춰 서서
잠시만 더 기다리세요.

머지않아
내 호주머니 활짝 열고
당신이 겨울 꿈속에서 보았던
그 별을 보여드릴게요.



나 영 순

- 시인 · 수필가.
- 한우리독서논술학원 청주시지부장.
- 한국문인협회 증평군 지부장.
- 현)증평군새마을문고 회장.
- 시집 「쥐코밥상」, 산문집 「시간의잠」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20. 3. Vol 263

Contents



보은군 임한리 「소나무숲」

충북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에 위치한 솔밭공원은 250년 정도의 노송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생태적 가치가 높아 충북도 자연환경 명소100선중 하나로 지정된 곳이다.

「사진 : 보은군청 제공」

- 04 | 제378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충청북도 2020년도 도정정책
- 07 |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교육시책
- 08 |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 09 | '코로나19'감염증 우한교민 수용 지원상황실 위문
- 10 | 제11대 의회 개원 1년 6월 주요성과
- 13 | 각 상임위원회 활동
- 19 | 제 378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21 | 5분 자유발언
- 22 | 대집행기관질문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 의원논단
- 30 | 의료상식
- 31 | 청원·민원·방청 안내

-
- 발 행 일 2020년 3월
 - 발 행 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발 행 처 충청북도의회
 - 편집위원 이상식, 최경천, 송창희, 조성민, 조성옥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buk.kr>



충북도의회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7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충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제378회 임시회 주요내용

충청북도·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대집행기관질문·민생현안 조례 의결 등 의정활동 본격 돌입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충청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충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민생현안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20건을 심의·의결하고 도정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방문 등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1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또, 서동학·이상식 의원이 대집행기관 질문을 실시하여

서동학 의원은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을 저하 원인·대책 △특성화고 재학생 학업중단 현황·대책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과 확대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상식 의원은 △(가칭)솔밭초등학교 설립 및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교육 균형발전 등과 관련한 학생 과밀현황 △도·농격차 해결방안 모색과 미래 신성장산업 체계성 확보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및 교육 균형발전 관련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형용 의원과 이의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개정에 따른 참정권 교육'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적극 추진'을 주제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



제378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독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등

고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충북도의회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도민 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회 마지막 날인 1월 21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 충

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등 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의결했다.

이어, 최경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잘못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경자년 첫 임시회에서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안전 심사와 대집행기관 질문 등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히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과 의견들을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계획된 주요사업과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집행기관에서는 귀성객 교통 편의와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며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379회 임시회를 오는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 실시하여 민생관련 조례안과 기타 현안사항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강호축 가동, 경자대본(經者大本)완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역사적 사명 완수에 최선”

충청북도 2020년도 도정정책

충청북도는 경자년인 올 한해 민선7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달성을 위해 ‘경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이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자세로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지난해 국가 최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강호축의 본격시동,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 예산 조기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내수 진작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 강호축 추진으로 충북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균형발전의 새로운 아젠다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고속화철도망을 구축하고, 바이오·뷰티산업 등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을 집적화 할 계획이다.

✓ 제4차 산업에 대응한 신성장산업 육성

충북이 그동안 선점해 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산업에 ICT 기술을 융복합해 나가며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자동차 산업을 추가육성하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기술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충북 실현

올해 충북은 도예산의 41.8%인 2조 1,363억원을 복지에 산으로 편성했다. 출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설치를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 등의 인프라 확충

충북역사를 총체적으로 담은 도지(道誌)를 재발간하고, 국립 충주박물관과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체육관 25개소를 확충하며 충북의 MICE산업을 선도할 충북 청주전시관을 착공할 계획이다.

✓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균형발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농업기술원 분원 영동 설립, 도립대학 기숙사 신축등을 본격 추진하고,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을 영동·증평·괴산·단양에서 추진하며,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깨끗한 물과 공기 공급 등 도민안전에 최선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상수도 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 깨끗한 물과 공기 공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재난 현장 드론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개소한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2월에 개관하여 충북 인재양성의 요람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의 힘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비전 실천

“한 명 한 명 소중히 하는 사람중심 교육으로 행복 세상 만들것”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교육시책



대한민국 교육 100년의 사명감으로 삶을 가꾸는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교육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새 길을 열겠습니다. 강한 책임으로 혁신을 추진하며 조화롭게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충북교육가족은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첫째**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미래인재학교로 만들겠습니다.
- 둘째** 자율·자치가 살아있는 행복한 민주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 셋째** 촘촘한 교육복지망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넷째** 창의융합교육과 인문소양교육으로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 다섯째** 교육목적에 맞는 기관(센터) 설립으로 혁신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의 비전을 세우며, 그 좌표를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잡았습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혁신의 물결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 충북 미래교육의 희망을 키우고,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겠습니다.

5대 교육시책

- 01 ·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 02 ·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 03 · 공공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 04 ·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 05 ·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2020. 중점사업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

고교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운영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만들기

행복·감성
미래형 공간 혁신

‘나눔 손길, 따뜻한 세상’ 설 맞아 소외된 이웃과 사랑의 온정 의장단·상임위원회별 사회복지시설 방문 생필품 전달·위문



충북도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장선배 의장과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1월 17일 청주시 미원면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인 ‘보듬의 집’과 용암동 소재 ‘용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장 의장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도의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층을 보듬는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철 부의장은 옥천군 옥천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생필품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어린이들과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심기보 부의장은 1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충주시 소재 ‘우리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 후 입소 어르신들과 시설관계자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과 의원들은 직원들과 함께 청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청주투모로우그룹홈’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어린이들과 간식을 함께하는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최경천, 박형용 의원은 청주시 북대2동 소재 노인복지센터인 북대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정감 넘치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월 1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대우꿈동산’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기념품을 전달한 후 입소자들과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2일 영동군에 위치한 ‘안나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월 17일 진천군에 위치한 ‘덕산노인회 분회 경로당’과 음성군에 위치한 ‘포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과 서동학 의원 등 의원들은 청주시 ‘꿈꾸는 씨앗지역아동센터’와 충주시 ‘금가양로원’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 우한교민 수용 지원상황실 점검·위문

철저한 방역·신속한 물자지원으로 교민·지역주민 안전 당부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이 2월 6일 진천·음성에 위치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상황실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도의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2월 6일 오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우한교민 수용과 관련해 진천·음성 상황실과 혁신도시 상황실을 각각 방문해 현황 및 대응상황을 확인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후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장선배 의장과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 및 육미선, 이상욱 의원 등 소속 위원들과 진천과 음성 지역구 임영은, 이수완, 이상정, 김기창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해 “우한교민 수용으로 진천과 음성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물자지원으로 지역주민과 우한교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또, 2월 10일 장선배 의장과 이상식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청취하고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이 있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역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선배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기업과 소통창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국 지방의회와 진천·음성·이천·아산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

카드뉴스 제작, 14일부터 17개 지방의회 홈페이지·SNS로 특산물 홍보



충북도의회는 2월 14일부터 전국 지방의회와 인터넷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천·음성·이천·아산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협의하고 실행에 나섰다.

충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우한교민을 맞아준 진천·음성·아산·이천 농산물 팔아주기에 손을 맞잡았다.

충북도의회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중국 우한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준 진천·음성 지원을 위해 각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인터넷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농산물 온라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와 시·도의협의회는 ‘우리는 서로의 안전망’이라는 공동 슬로건 아래 우한교민 수용지역인 진천·음성·이천·아산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카드뉴스 6장을 제작해 농산물 판매·홍보를 지원한다.

카드뉴스는 관련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에 대한 소개와 구입처를 기재해 전국 지방의회 SNS를 통해 홍보하며 무농약 생거진천쌀·청정음성고추·유기농아산오이·임금님표 이천쌀 등이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우한교민 수용에 따른 지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등과 힘을 모아 우한교민 수용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혁신·민생·능동의정으로 지역 현안해결 앞장

제11대 1년 6월, 집행부 견제·현안해결·입법활동 강화 총력

지난 2018년 7월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출항 1년 6개월간을 맞아 그동안의 노력들이 의정전반에 걸쳐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의회가 충북도민의 눈높이에서 민생현안을 챙기고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데서 비롯된다.

도의회는 그동안 △생산적이고 원할·다양한 선진

의정 구현 △지역발전·복지정책 등의 입법활동 강화 △견제·감시·협력 등 탄력적인 의회운영 △현장 확인을 통한 도민 목소리 적극 반영 △도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 △연구·연찬을 통한 의정수행 능력 강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현안해결 앞장 △도정·지역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 △인사청문회 실시·탁월한 중재역할 도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생산적이고 원할·다양한 선진의정 구현

제11대 도의회는 1년 6개월에 걸쳐 정례회 4회 117일, 임시회 9회 98일 등 215일간 회기를 운영해 조례안 203건, 예산결산 25건, 동의승인 69건, 건의 등 34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비회기 중에도 각 지역별로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냈다.

■ 지역발전·복지정책 등 입법활동 강화

그동안 제11대 도의회는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등 133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했다.

이는 직전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90건에 비해 3배 이상한 증가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씬 없는 연구와 활발한 도민 소통으로 도민의 생활 곳곳에 필요한 민생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 연구·연찬을 통한 의정수행 능력 강화

충북도의회는 1년 6개월간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

용이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국민임대아파트 교육·문화·복지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충청북도 농촌체험휴양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 관광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 등 7건의 의정학술연구용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혁신방안 △충북지역 초등학교 복지교육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등 9건의 의원연구 활동을 펼쳐 충북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적립했다.

■ 견제·감시·발전적 협력 등 탄력적 의회운영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 도의원들은 87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38건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통해 주민 우려를 전달하며 도정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제안을 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 펼쳤다.

또 161건의 서면질문을 통해 행정을 꼼꼼히 살폈고, 2018년도 6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87건을, 2019년도에는 65개 부서를 대상으로 490건을 시정·개선 요구하는 등 1년 6개월 동안 977건을 시정·개선 요구하며 도민의 눈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따졌다.



■ 현장확인을 통한 도민 목소리 적극 반영



6개 상임위원회에서는 108회 걸친 주요도정 및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도민, 사회단체,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91회 개최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조례제정과 주요정책 결정을 위해 28회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입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는 등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 건설계획 반영 요구

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장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등 6개 도, 시·군의 장단이 지난해 1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건설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 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 78.8km의 일반철도 구축 사업이다.

충북도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6개 지방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교통수요 분담, 지역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6개 도·시군 자치단체장도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도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5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24회 방

문하는 등 도내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의정상을 보여왔다.

또 1년 6개월간 1,478명이 의회를 견학하고 각계각층의 많은 방청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에 앞장섰다.

■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현안해결 앞장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한 지역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2018년 10월 구성된 충북선철도 고속화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도·시·범도민대책위 합동토론회 및 공동 성명서를 발표 하는 등 12회의 공식 활동을 벌였다.

2019년 4월 구성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관광협회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2019년 6월 개의원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 미세먼지 합동 정책토론회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을 주제로 합동 홍보캠페인을 펼치는 등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 도정·지역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

제11대 도의회는 해외연수 개선방안 토론회를 거쳐 2019년 5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해 국내사전연수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출장실행계획서 작성과 현지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투명하고 모범적인 국외출장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도의회는 강화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열어 조례를 제·개정했다.

또 충북 마더센터설치, 충북형 축산분뇨에너지자원화 시설 구축 등 11건의 정책을 제안하고 충북도와 함께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10월에는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방문해 지역간 우의를 다지고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헤이룽장성에서는 청주~하얼빈 항공 정기노선 운항 확대를 제안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지방의원의 의외외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19년 8월에는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규

탄대회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등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도민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변했다.

■ 인사청문회 실시·탁월한 중재역할 도모

제11대 충북도의회는 2018년 12월 초·중·고등 학교와 특수학교 무상급식 및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갈등을 봉합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

또 충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2019년 9월 충북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충북개발공사와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고, 2020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미디어팀 신설 등 내부조직을 개편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회 적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취임 1년 6개월을 맞은 장선배 의장은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0대 / 제11대 의회 의정활동 주요성과

내 용	제10대 및 제11대 실적비교		주요 사업현장 확인 : 108회
	제10대 전반기 1년 6개월	제11대 전반기 1년 6개월	
회 기 운 영	13회 / 194일 · 정례회 : 4회 / 108일 · 임시회 : 9회 / 86일	13회 / 215일 · 정례회 : 4회 / 117일 · 임시회 : 9회 / 98일	· 정책복지위원회 18회 · 행정문화위원회 19회 · 산업경제위원회 16회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41회 · 교육위원회 14회
의 안 처 리	310건 · 조례 196 건 · 예산·결산 16건 · 동의·승인 62건 · 건의·결의 17건 · 기타 19건	344건 · 조례 203건, · 예산·결산 25건 · 동의·승인 69건 · 건의·결의 15건 · 기타 32건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 91회 · 정책복지위원회 19회 · 행정문화위원회 6회 · 산업경제위원회 25회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3회 · 교육위원회 18회
도정·교육시책 질문 (대집행기관 질문)	12회 20명 58건	6회 9명 38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 133건 · 제정 71건 · 개정 62건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81회 216건	87회 126건	
의회 건학·방청현황	(건학) 14회 279명 (방청) 26회 371명	(건학) 26회 1,478명 (방청) 38회 209명	의정학술 연구 : 7건 의원 연구활동 : 9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9회 19개교 670명	11회 22개교 741명 ※ 의정체험 6회 6개교 289명	
전체의원 연찬회 운영	2회	3회	

제378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정활동 홍보 · 의원 연구활동 지원 강화 주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78회 임시회 회기 중 2차례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4건의 안전과 기타 현안 사항들을 처리했다.

먼저, 1월 14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제379회 임시회를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 진행하여 안건 및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실시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는 2020년도 1월 1일자로 개편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를 통해 의회사무처장에게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고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1월 21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의를 건」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동의를 건」을 심사·의결하고 기타 현안을 처리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여 기존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향후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여 조례 없이 규칙만 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향후 자치법
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78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도민복지 향상 위한 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 주문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최경천 의원



박형용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1월 21일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현장을 방문해 제작과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박형용 의원은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심기보 의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내 여성독립운동가 흉상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전문가 및 유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있게 제작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육미선 의원은 “지역의료인력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가칭)공공보건의료인재양성장학금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보다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여성인력 POOL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건강보험 제도 등을 정비한 후, 이를 근거로 충분한 논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경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내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지역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 이직률 문제가 해소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과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한편, 박상돈 위원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의정활동 역량을 총 결집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78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지원 조례 제정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원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전원표 위원장은 감사관 보고에서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고 공보관 보고에서 “충북을 알리는 일이 중요한 역할을 임을 유념하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허창원 의원은 “충북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며 “직원의 창의성을 높일 방안·제도가 마련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철흠 의원은 “도민홍보대사 운영을 통한 홍보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고 “충북 체육발전을 위해 실업팀 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미애 의원은 “공공디자인센터 설립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디자인 세미나 확대 개최 등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타 지자체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확인과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상교 의원은 “도정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확대시행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청주시에 과도하게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립도서관을 충주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옥규 의원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갑질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해 달라”고 주문하고 “갑질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흠 의원



이옥규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1월 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78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방사광가속기 ·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 촉구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가 지난 1월 14일부터 21일 까지 8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기관방문과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경제통상국, 농정국, 신성장산업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각 출자·출연기관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현안사업과 신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분야 주요 내용은 “도내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는 인력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매칭시스템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발굴하여 충북경제 4%를 조기에 달성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충북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진 신성장산업국에 대해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충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고 “에너지 분야

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방안 모색, 블록체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양성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충북도 성장산업을 위한 의견들을 제안했다.

농정분야 주요 내용은 “농촌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운영 방향들을 제시했다.

또한, 1월 20일 증평군에 위치한 ‘에듀팜특구’를 방문해 특구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한 후 간담회를 열어 도내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관계자로부터 도내 스타트업 기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도내 관광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0일 증평군에 위치한 ‘에듀팜특구’를 방문해 시설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물들을 꼼꼼히 살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78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도내 지반침하지역 집중 점검·예방 만전 당부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기창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이틀간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먼저,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윤남진 의원은 "고령운전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10년 사이 4배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자진반납제도 등의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겨울철 기온차가 크고 눈이 내리면서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밝히며 "상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탁 의원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단순히 비용 및 편익으로만 볼 수 없는 지역적 요구가 많은 사안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아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창 의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도민이 겪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작 피해를 입은 도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수완 위원장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 오송 1·2산단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오송 바이오밸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 음성군 '포란지역 아동센터'와 '진천군 덕산노인회 분회 경로당'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충북도의회가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눔문화 조성·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제378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제잔재 청산교육 등 역사인식 개선 만전 촉구



위원장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영 의원



황규철 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월 16일 충북 고교혁신 미래인재육성모델 관련 충북산업과학고 등을 방문해 교육과정과 운영실태를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7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1월 15일 실시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영주 의원은 “폐교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련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게 처리해달라”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만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거법을 쉽게 안내·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규철 의원은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추진 시 정확하고 세심하게 수요를 조사한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원 의원은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분석을 재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교육청의 대외협력 업무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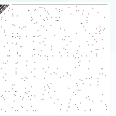
이의영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등·하교길의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동학 의원은 “특수학교의 급식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관련 학생들이 급식차별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숙애 위원장은 “2년차로 접어든 자유학년제를 순조롭게 진행·시행하여 사교육 불안감을 줄여주고 역사 바르게 세우기 추진 및 일제잔재 청산교육 등의 역사인식 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2020학년도 신설·폐지 및 교명·주소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어,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78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형용 의원)

[제안이유]

-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 등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학생의 정의를 개정함
 -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학생 중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학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3조의2,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와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체육회관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 (방서동)
- 위탁기간 : 2020. 3. 1. ~ 2023. 2. 28.(3년간)
- 수탁자 : 충청북도체육회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운영예산 : 시설운영수익으로 충당
- 위탁내용 :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원표 의원)

- 충청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능나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도지사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안 제4조)
- 재능나눔 사업 (안 제5조)
- 사업비 및 포상 등 행·재정적 지원 (안 제6조~제8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교육장 위임 사무 중 관할구역 내 사립 고등학교·특수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사항 포함
 -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사립 고등학교·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급에 관한 사항 신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제안이유]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입주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구체화
- 명칭변경 :
 - 주거복지 상담사 → 주거복지사
- 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신설
 -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 소관 국 변경
 - 보건복지국 →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직개편으로 변경 또는 신설부서 상임위 소관 반영 등(안 제4조 제2항)과 관련조항 정비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연구단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2조)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3, 4조)
-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 6조)
-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안 제9조)
- 연구용역비 신청(안 제10조)
- 연구단체 등록 취소(안 제13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20학년도 3월 1일자 학교(유치원) 신설·폐지 및 교명·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신설

명 칭	위 치
충주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주시 호암동 산 98-3
충주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충주남한강초등학교	충주시 호암동 산 98-3
충주대소원초등학교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충주대소원중학교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

- 학교폐지

명 칭	위 치
대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주시 이류면 대소새마을길 10
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주시 소태면 구룡로 769
남한강초등학교	충주시 사직산6길 20
대소원초등학교	충주시 이류면 대소새마을길 10
아동초등학교	충주시 소태면 구룡로 769

- 학교 위치란 변경(주소 변경)

명 칭	위 치
서전유치원	진천군 덕산을 대월로 95
옥동유치원	진천군 덕산을 예지로 31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진천군 덕산을 초금로 687-2
옥동초등학교	진천군 덕산을 예지로 43
진천상신초등학교	진천군 덕산을 대월로 107
한천초등학교	진천군 덕산을 초금로 687-2
덕산중학교	진천군 덕산을 몽촌2길 19
서전중학교	진천군 덕산을 예지로 42
서전고등학교	진천군 덕산을 대하로 4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상위법령(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연가가산 유사경력 적용 대상을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일원화하여 별표 4를 삭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제16조, 제17조 삭제
- 인용조문 중 「시행령 제7조의6제2항」을 「시행령 제7조의7 제2항」으로 「시행령 제7조의6제7항」을 「시행령 제7조의7제7항」으로 개정(안 제18조제1항, 제1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관명 변경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영동휴양소)
 -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
 - 충청북도학생수련원(제천분원)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 충청북도의회 의장)

[주문]

-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의 퇴직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위원 선임 : 이상정 의원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 충청북도의회 의장)

[주문]

-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유정 위원의 퇴직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위원 선임 : 박문희 의원



| 5분 자유발언 |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개정

참정권 교육 시급



박 형 용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14만명을 포함한 18세 유권자 53만2000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통해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교육·학습으로 정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미래지향적 대안이며, 이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이 대거 발굴되고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와 18세 유권자들의 선거법 준수 및 올바른 투표권 행사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거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활동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준 맞아

저감대책 적극 추진해야



이 의 영 의원
(교육위원회)

충북도내 밀집되어 있는 폐기물 소각장들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심각성 인식과 대책마련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의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저감 대책과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및 관리·감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전담조직

신설과 강력한 행정력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예산 증액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사업 예산증액으로 단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가기상위상센터 등 충북도가 가진 우수한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환경기반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 감소 및 대처방법에 대한 도민교육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참여의지를 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안전한 충북, 깨끗한 충북’이 실현되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즉각 시정돼야



최 경 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임금피크제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사회적 합의나 기관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도입초기 제시됐던 당위성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지방출자·출연기관 12곳 중 임금피크제가 시행 중인 10곳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정년 60세의 법제화’로 노동자들의 정년보장 불안감이 해소된 상황임에도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보장 방식으로

만 운영되고 있는 점, 임금이 감액된 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나 단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 임금피크제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연장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부득불 임금피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감액률을 최소화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인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교육지원 등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연장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취업률 향상을 통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서 동 학 의원
(교육위원회)



Q 저는 오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저하와 신입생 미달사태, 학업중단을 증가 등 특성화고와 관련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는 어떤 학교인지 설립취지와 교육목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특성화고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현장실습 등의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Q 교육감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률 문제에 대한 생각과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 특성화고 학과 개편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수요와 충청북도 주력 산업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학과 개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채용을 행안부 권고 비율인 25%이상을 충족시키고, 도내 특성화고 중 경쟁경쟁으로 선발 가능한 학과의 지역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대 모집·선발해 도내 시·군 특성화고 인재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한 권역별 직업교육 홍보활동 강화와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사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청과 지역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과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과 지역 고졸 인재 육성과 채용방안 확대 등을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Q 현재 충북 특성화고에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 산업구조와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과 '양질의 일자

리' 확대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미래인재육성모델을 살펴봤습니다만, 취업률 증진이나 신입생 미달사태를 해결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성화고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명한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북 특성화고의 비전을 보고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하며,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관련 사항이 보완된 특성화고 미래인재육성모델 정책의 조속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현재 특성화고는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및 산업수요에 따른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 및 학과명을 변경·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유형 설정을 반영하고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강화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개편으로 직업교육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5년간 충북교육청의 고졸채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부의 고교 취업활성화 방안 이후 2019년도 고졸 채용은 전체 228명 가운데 단 2명으로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형식적인 채용, 매우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A 공공기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과 관련하여 낮은 채용인원도 문제지만, 과락으로 탈락하는 학생이 많아 채용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 서동학 의원

Q 우리 충북도교육청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포함한 고졸 채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다양한 직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타 공공기관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생의 채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실천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A 지역경제인협회, 상공회의소, 실습협력업체와 자주 소통하며 도내 중소기업들과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중소기업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특성화고에 취업지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취업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의 자격요건과 주요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지원을 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 모니터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취업지원관이 전문성 있는 역할과 활동으로 학생들이 믿고, 의지하고, 상담도 하며 도움도 요청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와 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관이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되지 않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Q 특성화고는 특정분야의 업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제대로 된 현장실습은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며, 직접 취업으로까지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 지도·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김병우 교육감

A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참여기업에 세금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충북 경제 4%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시면서 충북에 투자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부분 중 '우수한 인적자원'에 많이 공감합니다.

충북에 자리를 잡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사님께서 명문고 육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를 통한 기술 인력 양성에 교육감님과 함께 특성화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의 각종 정책 수립에 특성화고와 연계한 인력수급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과개편을 통한 인력양성 방안까지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김병우 교육감님과 이시종 지사님께 당부 드립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미래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산업현장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개발과 체계화된 현장실습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북의 직업교육 정책을 재정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역 균형발전 술밭초 과밀 해결방안 마련 촉구

이 상 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Q 농촌의 고령화 방지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입니다.

충북이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정책이 타 시·도와 차별되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청년담당관실을 만들어 청년문제를 집중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초기생활 안정자금 지원, 충북 결혼공제사업 전국 최초 시행 등이 타 시·도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의 보급·운영은 농업기술의 확대와 창의적 농업경영,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한 스마트팜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인구부족으로 고민하던 농업분야의 신성장 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에 스마트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제천시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확정되었고 바이오 첨단농업복합단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팜 농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노지 스마트팜 농업, 과수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농업이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 청년농업인 육성의 지원은 미래농업의 희망이며,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 중 스마트팜이 또 하나의 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호재를 맞고 있으나 인구고령화 비율과 기업체 수를 봤을 때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의 상황은 충북발전 정책에서 다소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는 지역내 활력은 물론 인구유지 및 인구유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남부권 기업유치를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한 획기적인 개선 복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기업유치 문제는 기업이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부권 유치를 권유해도 기업에서는 중부권 방향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 남부권 기업유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에 영동산단과 황간물류산단, 보은에 동부산단을 비롯한 3개, 옥천에도 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분양당가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투자 보조금을 최대 24%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옥천까지의 광역철도가 건설된다면 기업유치, 농산물판매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남부권의 접근성 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가 타 지역에 비해 특성화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산단을 특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GRDP 통계를 보면 보은·영동의 GRDP가 인구가 훨씬 적은 단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충북에서 도내 균형발전에는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들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GRDP 문제는 기업유치만이 아니라 소비, 내수 진작 등도 같이 통계가 잡히는데 단양의 경우 관광산업 발달



질문 이상식 의원

로 GRDP가 다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충북 균형발전을 강호축 개념에서 찾아보고

자 철도망 연결 외에 백두대간 관광벨트, 백두대간과 연관된

국가순환도로망 등을 국가계획에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일단 균형발전계획에는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순환도로망을 만들어 강호축 개념에서 남부3군을 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농업기술원 분원의 영동이전도 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이며, 이와 함께 농촌지역을 위해 농업인기본소득보장제를 검토하여 저소득 농가에 대한 균형발전도 고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남부3군도 관광자원 요소가 있는 만큼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시고 농가기본소득보장제는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도 함께 고려하여 관계부서, 농민단체, 도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A 네. 알겠습니다.

Q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님께 긴급한 현안이고 우리 교육시설에 대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가칭)솔밭2초교 설립문제입니다. 우선 파악하고 계시는 청주시 대농지구 과밀학급의 심각성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솔밭초교는 그 지역이 가입기의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면서 애초에 36개 학급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현재 60개 학급을 들여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청주시에 양해를 구해 세 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부정적 결과가 나와서 현재 학교부지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이시종 도지사

Q 택지개발이 되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사실 학교시설복합화가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부지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부지비용만 3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대체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과 말씀하신 시설복합화 방식을 검토해 보았으나, 어떻게 풀어야 할지 더 다각도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처음 도시설계를 할때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으나 현재는 교육청에서 시급하여 추진된 상황입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두고 거리가 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에서 더욱 주도적으로 협의에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A 당연히 먼저 대안을 찾고 시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용지를 무상증여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Q 방법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청주시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한다면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의 건축비를 대주고 전체적인 학교 설립비용을 낮추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 학교용지 부담규모를 줄이기 위해 운동장 축소 및 강당 미설치, 국민체육센터활용, 운동장 아래 주민을 위한 주차시설 설치 등도 제안했으나 조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의 여유가 늘었다는 보도를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여력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교육균형 발전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충북도의회는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아 가경터미널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구입하고 시장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이 1월 2일 충훈탑을 방문해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며 충북도의 번영을 기원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이 1월 3일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청주상공회의소가 그랜드프라자청주호텔에서 개최한 '2020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충북의 발전을 기원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1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방문해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특별회비 모금에 도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이어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1월 18일 울산광역시에서 실시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협의했다.



김기창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신종 감염병의 위기대응

2020년 초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의 위기에 직면함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와 이에 따른 공포 양날의 칼이 정부 정책 시험대에 다시 올랐다.

다수의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을 의미하는 감염병은 인류의 건강과 경제계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급부상했고 지구촌화에 따른 전 세계적 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2003년 사스(SARS)-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2015년 메르스(MERS) 등의 신종 감염병을 경험했던 정부는 위기관리정책의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정책의 시험-오류를 피드백하면서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

신종 감염병은 관료적 책임이 모호하고 불확실성이나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재난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국민들의 두려움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는 어떠한 수준이 바람직한 것일까?

위기관리 수위를 조절할 때에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실제 발생가능한 대규모 확산에 대한 대비, 즉 양쪽 간의 저울을 평행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과장된 대응이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확산보다는 나을 수 있다. 메르스의 경우 환자가 자발적 신고를 한 경우는 80% 수준인 반면 공항 검역에서 확인된 경우는

20% 수준으로 검역소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잡아내지 못했던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과장·과도한 대응이 전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사태종료 후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대책,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의 정비와 방역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물자의 조달 등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

위기관리정책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정부 내 기관들은 물론 민간분야와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의 역할만으로 한계점이 있는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는 통제가능성 저하 측면에서 공공-민간부문 간 협력과 의사소통 그리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사태 종료 후 경제적 타격에 따른 경제성 회복 문제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정확한 초기 진단과 탐지를 통해 신속한 방역체계 가동을 위한 사전구축, 감염병 급증에 따른 신속한 백신기술의 개발 시기를 결정하고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보건정책 개발을 통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보인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거울삼아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 그리고 능동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역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김 영 주 의원
(교 육 위 원 회)



지난 해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우리나라도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19’ 전파로 인한 건강위협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경제활동 등이 위축되어 기업·소상공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석권하는 기쁜 일이 있었다.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미국 영화계의 거장인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한 말을 깊이 새기며 영화를 공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칸 영화제나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결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봉준호 감독에 대해 ‘기념관을 세운다’, ‘생가 터를 복원한다’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나 영화제작자, 주연배우는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원에 다녀야 하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입시에 올인 해야 하고, 대학시절에는 취업에 집중해야 하는 숨 가쁜 사회에 살고 있다. 창의적이라는 말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겠고 ‘대한민국에 개인적인 것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

이러한 집단적 문화는 공직사회에서 더욱 강화됐다.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다양한 업무수행 방식은 장려보다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창의적이라는 것은 조직 수장들의 몫이 돼 공무원들은 그저 성실하게 집행만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들어온 젊은 공무원들은 창의적 사고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배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지난시절의 관행을 답습하며 중견공무원으로 변신하게 됐다.

창의적인 사고 없이 과거 관행대로 순응하는 공무원 조직으로는 창의적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열악한 한국 영화계에서 봉준호 감독이 독창적인 창의성이 없었더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께서 공격하기 유리한 잔잔한 해상에서 해전을 펼치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전술을 쓰지 않고 이와 정반대로 ‘울돌목’이란 물결이 매우 거친 바다에서 해전을 치러 13척의 거북선으로 133여 척의 왜선을 크게 물리친 명량해전(鳴梁海戰)의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개인적인 것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과거를 답습하는 조직에 머문다면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조직규모가 큰 타 광역자치단체를 넘을 수 없다.

이번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영화제를 휩쓴 사실을 교훈삼아 각 지자체가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창의성을 존중·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감염병에 대한 소고’

손 병 관 원장
(청주의료원)



필자와 비슷한 나이의 소아과 의사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의 하나는 감염병을 절대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신생아 파상풍,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 사회경제학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던 질환들의 빈도가 확실히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의학발전에 따른 예방접종이 크게 기여했고 위생인식 변화와 경제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문제는 기후를 포함한 지구환경 변화, 운송발달로 인한 하나의 지구촌 등에서 야기되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환에 노출되며 나타나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유행처럼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미 신종 독감, 사스, 메르스 등으로 심각성을 경험한 우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다시 한 번 긴장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병들은 동물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지역에 따른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런 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역에서 사람에게 전파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사람은 면역계라는 고도의 정교한 체계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면역계가 활성화 되려면 사전에 세균, 바이러스, 알레르겐 등의 외부물질과 접촉한 경험이 있어야 체내에서 이런 물질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면역물질이 만들어 지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외부물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노출되면 면역물질이 없어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유아나 어르신의 경우 면역계의 기능이 떨어져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우리 인체가 경험하지 못한 균의 경우는 특별히 젊은 층에게도 유리한 면이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나라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철저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수분 많이 섭취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기, 증상이 있을 때 신고하고 지킴 따르기 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 의학의 꽃은 예방이다. 앞에서 언급한 감염병이 줄어든 것도 예방 접종을 위시한 예방의 결과다.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전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질병 관리에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은 불편할지 모르나 그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며, 치료에도 최선이라는 점이다.

병이 나면 귀가 얇아져서(?) 일반인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 솔깃해서 엉뚱한 데 돈을 쓰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민원·방청안내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TBre01LcVSzI_MVsD8R5EA
- 트위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